

2018 봄호
www.jungtoh.org



수행과 돌봄이 하나된
정토마을 행복공동체

행사일정 2018.3 ~ 2018.6

jungtoh
정토마을 공동체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 제 4차 법화경 독송 천일기도 : 매주 넷째주 일요일마다
- 정토마을 법화경독송 21일 장좌기도 회향 : 3월 2일 * 정초 핵심 불사
- 보살계 수계식 : 4월 27일 ~ 28일
-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 : 5월 22일
- 진신사리 봉안 백일기도 : 1,000일 기도 중 8차 100일 기도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 석사과정, 생명교육 전문가과정 대학원 입 · 졸업식 : 3/3
- 파랑지역아동센터 명상수업 : 3/20, 4/17, 4/24, 5/15, 5/29, 6/19, 6/26
- 봄 시민 무료 공개특강 <치유와 성장의 힐링극장> : 1강 - 3/8, 2강 - 4/12, 3강 - 5/10, 4강 - 6/7
- 석사과정, 생명교육 전문가과정 대학원 기말세미나: 6/30

마하보디교육원

- 승려연수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 모집: 3/27~3/29
- 솔마더(Soul mother) 모집: 4/1, 5/6, 6/2~6/3
- 공동체 직원교육 : 모금교육 - 4/19, 법당예절 및 불교인사법(아침조례) - 5/14, 호스피스 영적돌봄 - 6/2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 매월 환우 생신잔치
- 3월 30일 : 제 6회 '별아람'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호스피스병동 사별가족 모임 개최
- 6월 29일 : 제 7회 '별아람'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호스피스병동 사별가족 모임 개최

청주 정토마을

- 3월 염불선수행 불칠회 7일기도: 16일(금) 켄보스님 특별법문 / 17일(토)입재 ~ 23일(금)회향
- 4월 염불선수행 : 20일(금) 특별법회
21일(토) ~ 22일(일) - 아미타부처님 관정법회 및 수행 가르침 구전
린뽀체스님께 만다라 공양
- 5월 염불선수행 : 18일(금) ~ 20일 : 린뽀체스님의 아미타부처님 수행방법 전수
- 매월 금요일 금요법회 : 지덕스님의 사가행 법문

발행처_ (재)정토사관재회 **발행일**_ 2018년 3월 2일 발행 **편집인**_ 능행 **등록**_ 울산바01004 (2008.4.11)
편집위원_ 장광대 김현아 최진현 **사진**_ 편집부 **정토마을(울산)**_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052-255-8588) **정토마을(청주)**_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초정로 856-19 (043-298-2258)
마하보디교육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052-255-8521) **제작**_ (재)정토사관재회
비매품 본 인쇄물은 석보체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2018 봄호 (통권 37호)

목 차

01	여는 글	04
02	국제의료봉사	06
03	쉬어가기	11
04	교육원 후기	12
05	법화경강설	16
06	호스피스 이야기	20
07	2018 장좌기도	22
08	남인도 순례	24
09	청주 정토마을	27
10	공덕의 향	29
11	후원명단 및 감사의 글	30
12	재단 소식	33
13	모연문	38

삼월을 열면서

언 땅이 녹아내리고
산천에 살고 있는 생명들이 깨어나며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꽃너울...
시절 따라, 절기 따라 절로 피고 지는 자연의 섭리를
만나는 삼월입니다.
푹푹한 흙 향기에
먼지 묻은 우리의 마음들도
겨울잠 깨듯 툭툭 깨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꽃 위에 봄별 아지랑이 너울같이
길상함이 우리들의 삶 위에
이슬비처럼 뿌려지기를 기원 드리는 삼월 좋은날입니다.

좋은 생각
선하고 착한 생각
맑고 선한 마음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마음들이
우리들의 삶 위에 길상함의 꽃비를 뿌려준답니다.
파도처럼 쉽 없이 무엇들이 일어나고 머물다 지나가는 인생살이 속에서
편안할 순간 잠시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삶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겠지요.





요즘 저는 새싹처럼 싱그러운, 그래서 삶에 활력을 주는 이타적 헌신 속에서도 자신의 의식성장을 향해 정진할 수 있는 수행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4월 첫 번째 주부터 시작하는 보디사트바 수행으로, 목표는 솔마더입니다. 삶의 재난, 삶의 허기로부터 길을 잃은 이들을 안내하고 그들을 도우며 상처 많은 마음들을 치유로 회복하게 하는 능력을 훈련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행과 이타행을 겸하는 대승불교의 고귀한 그 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주저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흠의 향기를 만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들을 만나는 삼월이소서.

그리고 5년 동안 기다려 온 보살계 수계식을 봄꽃이 만발한 4월 27일 ~ 28일에 봉행합니다.

보살계를 받은 인연 공덕으로 우리들의 마음에서 선한 보리심이 자라나서 내가 지은 선업 공덕이 나의 삶, 나의 죽음, 나아가서 나의 다음 생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와 이내 육신이 세상에서 사라지기 전에 어디에 살든지 자주 연락하고, 만나서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만들어가는 삶이기를 바라 봅니다.

길상의 꽃비가 내리는 정토마을 후원자인 그대의 삶을 축복하며
꽃 고운 삼월에 인사 올립니다.

꽃너울 피어나는 정토마을 자재병원에서 능행 합장



나를 내려놓는 봉사의 현장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 장광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곳으로 불교 4대 성지 중 하나인 인도 보드가야!

전 세계에서 많은 불자들이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곳이지만 그 보드가야 대탑 주변에는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불가촉천민들이 병고에 시달리며 방황하고 있는 양면성을 가진 곳이기도 하다.

그 보드가야에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정토마을에서 주관하는 국제의료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의료봉사기간은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8일 간)로 정하고 출발하기 6개월 전인 2017년 6월부터 자원봉사자 모집과 의료진의 구성, 의약품 종류 등 월별로 준비사항을 작성하는 등 의료봉사 계획에 착수하였다. 처음에는 의료봉사에 함께 참여한다고 한 것이 의료봉사 실무 총괄을 맡게 되는 단장이 되어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다.

해외의료봉사는 처음이라, 그 곳에 가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려면 현지 여건과 현지 환자들을 어떻게 방문하도록 할 것인지, 현지 통역을 위한 현지인은 어떻게 섭외할지 등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했다.

모든 과정을 주관하는 정토마을 이사장 능행스님, 인도 사띠아라마 명상센터 붓다 팔라 스님, 부산 웰니스병원 강경숙 원장,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이지서 수간호사, 김동수 홍보담당자 등으로 준비단을 구성하여 회의를 거듭한 끝에 필요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의료봉사단 전체 인원을 30여 명으로 생각하였으나, 예상 외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희망하여 57명의 대규모 국제의료봉사단이 구성되었다. 의사 3명, 간호사 8명, 스님 5명, 자원봉사자 38명, 홍보단 3명 등으로 참여자가 많으니 현지 숙식 등 기본적인 것부터가 걱정되었다. 그러나 인도 보드 가야 현지 사띠아라마 명상센터의 건물을 이용하게 되어 봉사활동을 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 무척 다행이었다.

3천여 명의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선정 및 약품 구입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준비에 어려움도 많았다. 최종적으로 비타민, 종합감기약, 안약, 관절염 치료제 등 27종류의 의약품과 혈압계, 초음파기 등 19가지를 준비하였다.

출발일이 다가오자 많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가져간다는 게 부담스러웠다. 만약 통관되지 않아 의약품을 압류 당하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가장 걱정이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50여 명의 집에 의약품과 부식 등을 10kg씩 나누어 넣어 가기로 했다.



의료봉사단을 본부팀과 의료팀(내과, 산부인과, 한방과), 식사후원팀, 안내팀, 미용봉사팀, 홍보팀, 현지 통역봉사팀 등 7개 팀으로 분류해서 각자 업무를 나누고 출발 전에 미리 안내하였다.

의료봉사단이 도착하면 바로 봉사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출발 3일 전 홍보팀을 선발대로 파견했고, 그 곳에서 우리의 의료봉사활동을 알리는 안내지를 제작하여 주변 마을에 배포하는 등 홍보하도록 하였다.

의약품은 짐차로 인천공항에 먼저 보내고 11월 27일 새벽 5시 22분 울산역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8시 40분에 도착하였다. 10시 30분부터 전국에서 모여들기 시작한 자원봉사자들이 밝은 표정으로 서로 인사하며 노란 정토마을 조끼를 입고 의약품을 각자 나누어 서로의 집에 넣었다.

1시 15분 인천공항을 출발.

홍콩을 경유하여 인도 델리 공항에 밤 9시 20분에 도착해서 입국 수속 후 각자 가방을 찾아 나오는데 혹시라도 의약품이 압류되지는 않을까 또 긴장했지만 전원 무사히 통과되었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11월 28일, 12시 10분에 인도 델리 공항을 출발해서 가야공항에 13시 40분에 도착하여 곧바로 봉고차 5대에 나누어 타서, 15시 30분 경 의료봉사지역에 도착하였다. 사띠아라마 선원장이신 붓다팔라 스님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통역을 맡은 현지인들과 인사도 나누고, 곧바로 의료봉사가 진행될 진료실과 자원봉사단이 숙박할 방을 안내받았다.

그런데, 숙소의 바닥이 전부 차가운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 일부는 담요 등을 가져왔지만 비닐 또는 종이박스를 깔고 누워 자야만 했다. 그러나 이 정도 고생은 이미 각오하고 왔기에 마음을 굳게 먹고 한 방에 서너명씩 배정하여 숙소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곳 날씨는 낮에는 30도를 웃도는 여름이고, 밤에는 10도 정도로 내려가는 가을 날씨여서 일교차가 매우 커 매일 새벽이슬이 내린다. 청주에서 단체로 온 자원봉사 팀의 맛있는 식사 제공 덕분에 큰 일교차 속에도 체력을 잃지 않고 봉사에 매진할 수 있어 너무나 고맙다.

11월 19일, 봉사 첫날 아침 기상과 함께 주변 청소를 실시하고 식사 후 오전 9시에 사띠아라마 광장에서 반야심경 봉독을 시작으로 봉사단 전체 조회를 한다. 그리고 각자의 봉사 구역으로 가서 사전에 준비할 사항을 점검하고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마음을 다해 기다린다.

의료봉사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9시 40분경부터 현지 환자들이 한두 명씩 모여들고, 10시 이후부터는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다. 먼저 구충제를 먹이고, 통역의 안내로 건강 문진표를 작성하면 진료실 별로 번호표를 주며 기다리게 했다. 환자들이 진료실 복도 100미터를 양 쪽으로 두 줄을 짝 채우고 광장까지 줄을 섰다. 그리고 부모들과 함께 온 어린 아이들에게 손등과 얼굴에 페이스페인팅을 해 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머리를 손질해 주는 미용봉사팀 쪽에도 아이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고, 광장에 짝 들어찬 환자들이 기대에 차서 기다린다. 오후가 되자 초등학교 학생들을 교사가 인솔하여 와서 구충제 복용과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 도포 치료를 받는다. 의료봉사지에 찾아오는 모든 이에게 식사한 끼 공양을 하려 했지만 여건상 어려워 빵, 비스킷, 과일, 사탕 등을 나누어 주었다.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꼭 야유회를 온 것 마냥 질서 정연하게 모여 노래도 부르고 박수를 치며 함께하는 그 모습은 자원봉사를 온 우리를 더 즐겁고 보람차게 했다.





첫날은 400여 명, 이튿날은 600여 명, 마지막 날도 700여 명이 진료를 받았고 불소 도포와 구충제 복용 등 간단한 구호만 받은 현지인도 3,200여 명에 달했다. 특히 한방과의 침술을 통한 어깨, 무릎 등의 근육통 치료도 예상 외로 호응도가 높았다.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들 중에는 본인의 임신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었고 복통을 호소하는 여성들 중에는 자녀 출산 후 깨끗이 정리되지 못한 태반이 몸속에서 썩고 있어 수술을 위해 병원 안내를 해 주기도 했다. 몇 시간을 걸어와 발가락 사이가 전부 찢어져 절뚝거리면서도 찾아온 어린 환자들에게는 차비를 쥐어 주면서 치료를 해 주기도 했다.

마지막 날에는 소문을 듣고 너무나도 많은 환자들이 찾아와 오후에는 더 이상 환자들을 받을 수 없어 진료소인 사띠아라마 명상센터 정문을 잠그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자원봉사자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사띠아라마에서 수행 중인 스님들과 함께 보드 가야 대탑의 새벽 예불에 따라나선다. 한 줄로 이어진 긴 행렬에 새삼 마음이 하나로 뭉쳐진다. 보드가야 대탑 주변은 경계가 심하다. 스마트폰 등과 각종 짐은 경내에 갖고 들어갈 수 없고, 신발도 벗고 들어가야 한다. 수행하는 스님과 참배객들은 꼭두새벽부터 철문 앞에서 문이 개방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날이 조금씩 밝아오고 새벽 5시가 되면 문이 열린다. 맨발로 대탑에 다가가서 합장 반배하고, 대탑 내 부처님께 꽃을 공양하며 마음속으로 이번 의료봉사를 무사히 마치고 아픈 이들의 심신이 깨끗이 치유되기를 발원한다. 그리고 대탑을 세 바퀴 돌고 그 앞에 있는 보리수나무 그늘에 앉아 새벽예불을 드린 뒤 명상에 잠긴다. 언제 왔는지 내 옆에 강아지 한 마리가 앉아서 같이 명상하고 있다. 세계 곳곳의 많은 참배객들이 탑돌이를 하느라 발 디딜 틈조차 없고 탁발하시는 스님들의 모습도 보인다.

한 시간 새벽 기도 후, 다시 사띠아라마 명상센터로 향하는 스님들의 긴 행렬을 따라 대탑을 뒤로 하고 나온다. 길거리에는 아침부터 팔다리가 불편한 불가촉천민들이 참배객을 향해 ‘원 달라’ 등을 외치며 동냥을 하고 있었다. 그 분들을 향해 다음 생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시기를, 합장하며 마음을 전한다.

3일 간의 의료봉사를 마치고 전체 조회를 하면서 자원봉사자, 현지 통역 및 안내원 등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의료봉사 경과보고 등을 설명하고 서로 위로와 격려를 나누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보드가야 대탑의 새벽예불,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까만 눈망울과 순수한 표정들. 불가촉천민들의 아픔과 고통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노력하였는가? 라고 생각해 본다.

부처님 가르침 중 하나인 인과법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선악의 과보로 나타난다고 한다. 그 인과법을 가슴 속에 모시면서 뜻 깊은 인도의료봉사 장소인 사띠아라마를 떠난다.

올해 또 새롭게 진행될 국제의료봉사를 계획하며, 더 많은 분들이 정토 마을의 국제의료봉사에 함께하기를 발원해 본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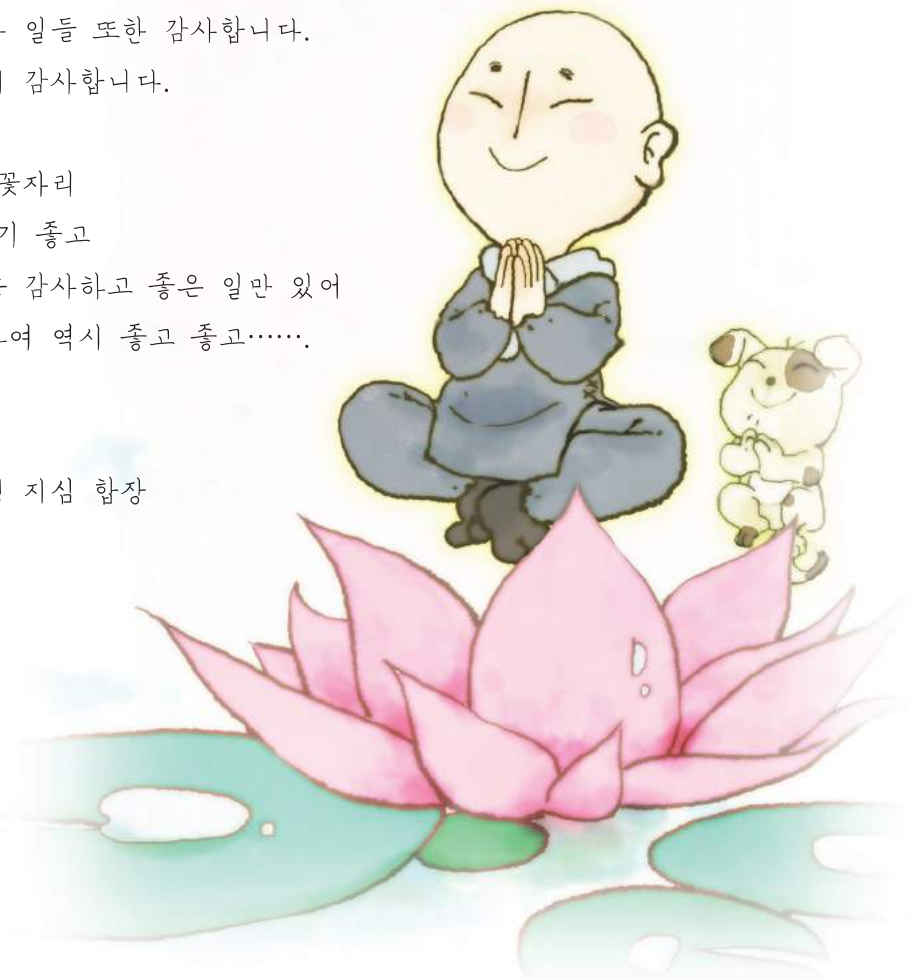
인도의료봉사 중 현지인들이 길게 줄을 늘어선 장면

묵은해니 새해니 따질 게 있나요,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자원 봉사자님 감사합니다.
정토마을 직원들 감사합니다.

슬프고 고달팠던 일들도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일들 또한 감사합니다.
법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
보기 좋고 듣기 좋고
무술년 한해는 감사하고 좋은 일만 있어
만사가 형통하여 역시 좋고 좋고…….

정토마을 능행 지심 합장



좋은 말 한 마디는 모두를 웃게 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에게 먼저 말 걸어 보세요.
마음 속에 있는 따뜻한 단어 하나를…….

삼화 | 정토마을 기획홍보팀

영적 돌봄 교육을 다녀와서

특별과정 승려연수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수료 정현

아직 찬 기운이 돌던 때 이곳 양산에서 처음 병원 법당을 접하고 병동의 환자들을 보는 순간 찰나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또한 그들을 대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에게 난 그저 무력감과 답답함, 그리고 아파하는 그들에게 난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스스로의 자괴에 마음이 못내 힘들었다. 그동안 수행이라고 했던 나의 지난날을 돌이켜 보며 나태해지고 게을렀던 내 자신에 대한 참회와 내 마음의 또 다른 수행을 발심하게 됐다.

강원을 졸업하고 중앙승가대를 다니던 때 옆에 도반들은 호스피스 교육을 열심히 다녔지만 난 명상상담에 한참 빠져 있었고 호스피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때였는데, 때론 인생이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든다. 관심이 없던 호스피스를 내가 하게 될 줄 그 누가 알았으랴…….

일반병동에서 호스피스 병동이 개원되고 삶의 마지막 여정을 남겨 놓고 있는 환자들을 보는 순간은 참으로 막막하기만 했다. 그들에게는 어떤 말을, 어떤 인사를 또 어떤 기도를 해줘야 할까! 나를 보기만 해도 손을 부여잡고 평평 우시는 그 모습에 나 또한 같이 울기만 했다.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나고 불교 호스피스에 대한 마음이 간절할 때 정토마을과 능행스님이 떠올랐다. 마침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승려특별연수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이라는 교육안내를 보고는 ‘아…! 이건 나를 위한 교육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장시간 수업시간이라 부담감과 기대감을 안고 입소를 해서 교육을 듣기 시작했는데 평소 저녁 8~9시면 수면을 취하던 습관 때문인지 몸도 피곤하고 눈꺼풀은 무거웠지만, 절대 졸 수가 없는 시간들이었다. 현 승가의 임종교육 및 스님들의 근시안적인 사고와 대처능력 그리고 불교계의 호스피스 상황에 대한 능행스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아 나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다. 또한 임종 시 필요한 진언과 만트라를 스님의 깊은 심연에서 나와 입으로 넓게 높이 울리며, 그 힘과 장엄한 음성 그리고 파동은 고요하면서 아름다웠고, 나의 가슴 속 깊이 울리며 여운을 남겼다. 그 소리는 나태함을 꾸짖고 지난 날을 참회하며 또 다른 신심을 동반하게 하는 소리였다. 임종자나 그 가족들이 듣는다면 영혼은 능히 부처를 만나 극락으로 가고 가족들에겐 몸도 마음도 모두 치유가 되는 진실의 음성이었다. 순간 한자의 “염불”자가 파자가 되어 나의 뇌리를 스쳤다. “今+心+佛= 내 이제 마음 깊이 부처님을 부르옵니다.”라는 심연의 소리… 염불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염불로 능히 산자도 죽은 자도 그 영혼을 인도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쉬게 하지 않는가… 또한 임종 절차와 이생을 떠나는 이의 마지막 염습과 입관 과정도 오롯하게 영혼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죽음이란 또 다른 여행이다.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 여행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 수행의 힘이 아닌가.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더구나 우린 수행자이자 성직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산다. 자신을 바로 알고 바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하니 수행자이고 그 수행의 힘과 깨달음으로 중생을 제도해야 하기 때문에 또한 성직자인 것이다.

요즘 시대는 수행하기가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다. 면밀하게 날카로운 관찰력과 세심함이 없다면 자신을 알아차린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정토마을에서 잠깐의 경험이 나에겐 정토세계에 다녀온 마음이었고 마침 거기에서 배운 진언으로 환우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

끝으로 먼저 이 교육을 가고 싶어 했지만 날 보내준 나의 동행 도반 스님께 감사드리며…….

8개월간의 솔마더(Soul mother) 과정을 마치고

솔마더(Soul mother) 수료 이지은

나는 2017년 1월에 생사의 장 불교호스피스교육을 마친 후, 같이 교육을 받은 도반의 권유로 교육 내용도 모른 채 솔마더에 참여하게 되었고,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수업과정을 빠짐없이 참여하면서 솔마더들은 함께 영적 키움을 하게 되었다. 수업은 이론적인 배움을 하고, 개념을 정립하면서 실습으로 바로 이어지는 패턴으로 진행되었다.

위뭇타 찌타 아디묵타로 대상과 하나 됨의 이치를 듣고 바로 현장으로 나가 대상과 하나 됨을 연습하고 스승님께 확인을 받고, 또 배운 것을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실습을 하면서 더욱더 넓어지고 성장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방법인 위뭇타 찌타 아디묵타가 생활에 녹아들 만큼 익숙해지면서 무아(無我)의 상태를 자주,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대상과 일치되면서 "내가 저것과 둘이 아니구나. 같은 것이구나."를 깨달았다.





이원성의 구분이 없게 되는 일을 자주 겪으면서 나의 파동과 대상과의 파동이 합쳐지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느끼며 어떤 생명, 무생명의 물체에게까지도 묵타를 실현하니 만법이 둘이 아닌 법공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경전에 있는 그대로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라는 뜻도 그것을 어떻게 내고 쓰는 것인지도 일상화 되어갔다.

그리고 이렇게 몸에 녹아든 이치를 차크라 디아나를 통해서 에너지화시켜 머리로 알기보다 몸에 익히게 되고, 아난다 만달라 명상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육체가 겉으로는 있지만 그 본질이 에너지 통로를 통한 빛의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거대한 빛과 하나가 되어 통합이 일어나는지도 체험할 수 있었다.

솔마더 8개월 과정을 진행하면서 나 스스로가 에너지의 고양된 변화와 카르마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었고 또한 나의 현실적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함께 왔다. 나의 내적 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나에게 고민 상담을 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타인을 도우려는 마음이 함께 일어났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직장에서의 성과도 크게 나타나서 모두가 만족하는 직장분위기로 변해가는 것이 확연히 느껴지면서 '내 주변 모두가 보살이 되어가고 있구나.' 솔마더를 하면서 나 한 명의 의식의 성장의 밝기로 인해 주변이 모두 밝아지고 같이 파동해 나간다는 것을 느끼면서 '모두가 함께 보살이 되는 유토피아가 가능하겠구나.' 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8개월 동안 진행된 이 수행을 지도하여 주신 스승님과 주말마다 수업진행을 열심히 도와주신 교육원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8개월을 함께 멋지고 아름답게 수행한 18명의 도반님들께 묵타를 보낸다.

* 솔마더(Soul mother)는 영적 치유 에너지를 강화하는 훈련 프로그램으로 201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능행스님께서 지도하여 주십니다.

묘법연화경 제1권

第五. 약초유품

서봉반산(瑞峰盤山)
스님

제 5 약초유품

첫째 주제. 약초의 비유[藥草喻]

1) 부처님 설법은 평등한데,
중생의 그릇에 따라 다르게

이제 약초유품에서는, 앞의 제4장 신해품에서 마하가섭을 비롯한 4대 성문제자들이 자신들이 이해한 것을 거지아들의 비유를 들어 말씀드리자, 세존께서도 역시 약초의 비유를 들어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지상의 식물, 특히 중생의 건강과 직결되는 약초와 그 위에 내리는 은혜로운 비를 소재로 한 법문입니다.

5-1.

“여래는 모든 법의 왕이니 설하는 바가 다 허망치 않느니라. 일체 법에 대하여 지혜의 방편으로 연설하였지만, 그 연설한 모든 법은 온갖 것을 아는 일체지지一切智地에 도달하였느니라. 여래는 일체 법이 돌아갈 곳을 관찰하여 알며, 일체 중생이 깊은 마음으로 행하는 바를 알고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며, 또 모든 법의 궁극까지 아주 분명하게 잘 알고, 모든 중생에게 일체 지혜를 보이느니라. 가섭아, 비유하면 3천大千세계의 산과 내와 골짜기의 땅 위에 나는 모든 초목이나 숲, 그리고 약초가 많지마는 각각 그 이름과 모양이 다 다르니라. 먹구름이 가득히 퍼져 3천大千세계를 두루 덮고, 일시에 큰 비가 고루 내리어 흡족하면, 모든 초목이나 숲이나 약초들의 작은 뿌리. - - - 여러 나무의 크고 작은 것들이 상·중·하를 따라서 제각기 비를 받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사자음성으로 온누리 중생들에게 가장 보편하며 누구에게나 이익이 되는 진리를 설파하심이 바로 이렇게 큰 구름이 일어나 대천세계의 국토에 똑같이 비를 내리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 비가 한결같은 것을 한 모양과 한 맛(一相一味)이라 합니다. 그것은 동일한 해탈 동일한 이욕, 동일한 열반이어서 결국에는 부처님의 지혜 바다에 함께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 약초의 비유에서는 비에 해당되는 부처님의 설법은 평등하게 모든 중생에게 내립니다. 그러나 그 설법은 받아들이는 중생들에게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처음 화엄경을 말했을 때 못 알아 들었 으니 최고의 화엄경이 중생 쪽에서 보면 전혀 엉뚱한 선문답과 같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법화경 이전에 여러 경전을 설해 중생의 근기에 맞추려고 3승법을 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수의설법隨宜說法, 또는 수기설법隨機說法’ 이라 말합니다.

2) 중생의 근기를 뛰어넘어 1불승의 법을 알 수 있다

약초유품에서는 부처님의 자비는 한결같은데 중생의 근기가 다르므로 각기 자신이 정진한 만큼 이익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이른바 ‘중생수기득이익衆生隨器得利益’ 이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비를 맞더라도 찻잔에 담기는 분량과 큰 함지박에 떨어지는 양, 강 끝에 독을 막은 댐에 담기는 양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나의 법을 담은 그릇은 우리들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와 내 것에만 목매고 살면 그 크기는 아주 작아지겠지요. 영원한 생명의 부처님, 나고 죽음이 없는 열반의 깨달음을 성취한 도인들의 법의 크기는 아니더라도 내 마음 속 욕심과 번뇌만큼은 잘 닦아서 나의 그릇을 키워야 하겠습니까.

5-2.

일체의 그 중생들 내 법 한번 듣고 나면
힘을 따라 받아 익혀 여러 지위 머물 적에
혹은 천상 혹은 인간 전륜성왕 제석천왕
범천왕과 같은 이 이들은 작은 약초.

一切衆生이 聞我法者는
隨力所受하여 住於諸地호대
或處人天의 轉輪聖王과
釋梵諸王하나니 是小藥草요

5-3.

샘이 없는 법을 알아 열반을 얻고 나서
여섯神通 일으키고 3명까지 얻은 뒤에
산림 속에 홀로 있어 선정을 항상 닦아
연각을 증득하면 이런 이는 중품 약초.

知無痛法하여 能得涅槃하며
起六神通하여 及得三明하며
獨處山林하여 常行禪定하여
得緣覺證하나니 是中藥草요

5-4.

세존 계신 곳을 찾아 나도 성불하리라고	求世尊處호대 我當作佛이라하여
선정 닦기 정진하면 이네들은 상품 약초.	行精進定하나니 是上藥草니라
너희 오직 행할 바는 보살도뿐이리니	汝等所行이 是菩薩道니
점점 닦고 배우면 모두 성불하리로다.	漸漸修學하면 悉當成佛하리라

세간에서 가장 뛰어난 전륜왕, 제석천왕도 불법으로 보자면 한낱 하품 약초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근기와 그릇을 키워야 할까요? 먼저 소승의 자기만족에서 벗어나 대승으로 재발심하여 일체중생을 어여삐 여기는 자비심을 내도록 자원봉사나 사회복지활동에 동참해 보는 것입니다. 불교 공부나 기도에만 만족하지 말고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렵게 고통 받는 이웃에게 보시하여 내가 보낸 보시금으로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나고, 내가 보낸 범보시책으로 인해 불자가 더욱 늘어나고 사찰의 비좁았던 법당이 넓어져서 많은 불자들이 편히 이용하는 장면을 보면 기쁨이 절로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제일공덕이 바로 방생공덕, 포교공덕이라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주제. 부처님은 진리의 왕[法王]이시다

1) 제도하지 못한 이를 제도하며, 편안하지 못한 이를 편안케

약초유품 첫 부분에서 「여래는 모든 법의 왕이니 설하는 바가 다 허망치 않다.」 고 하였습니다.

5-5.

“제도하지 못한 이를 제도하며, 이해하지 못한 이를 이해하게 하며, 편안하지 못한 이를 편안케 하며, 열반하지 못한 이를 열반케 하느니라. 지금 세상이나 오는 세상을 실답게 아노니, 나는 일체를 아는 사람이며, 일체를 보는 이며, 도를 아는 이며, 도를 여는 이며, 도를 말하는 이니, 너희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들은 다 여기에 모여 법을 들을 지니라. 그때 한량없는 천만 억 중생들이 부처님 계신 데 와서 법을 들었느니라. 여래는 이 때 중생들의 근기가 영리하고 둔함과 정진하고 게으름을 관찰하여 그가 감당할 수 있도록 법을 설하되, ---”

2) 현세에는 편안하고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다 [現世安穩 後生善處]
 - 불법을 믿어야 하는 이유

5-6.

“한량없는 이들을 모두 즐겁게 하며 좋은 이익을 얻게 하니, 그 중생들이 이 법을 듣고는 편안하고 후세에도 좋은 곳에 태어나[現世安穩 後生善處], 도도로써 쾌락을 받고 또 법을 듣게 되며, 법을 듣고는 모든 업장과 걸림을 여의고, 모든 법 가운데서 그 힘의 능력을 따라 점점 도에 들어가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앞에서 공부했던 제3 비유품의 계송을 보십시오.

5-7.

나는 법의 왕이라 모든 법에 자재하여	我爲法王하야 於法自在일세
중생 안온 시키려고 세상 출현 하였노라.	安穩衆生호려하야 故現於世니라

부처님은 진리의 왕이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능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법을 믿으면 현생에서는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내생에는 좋은 땅과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 분명한 메시지를 말하신 것이지요.

일체지지一切智地

-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아는 지위. 곧 부처님의 자리를 말함.





단비 내리는 정토마을 호스피스병동에서

.....
정토마을 호스피스병동 사회복지사
임 주 은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며 풋풋한 풀과 흙냄새가 녹녹히 젖어든 바람이 창으로 들어온다. 꼭 필요한 때에 알맞게 내리는 이 단비가 꼭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과 같다.

작년 가을 쯤 호스피스병동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처음 환자분들을 만났다. 사실 일이 나에게 주어지고 난 후에도 한동안 나의 일이 너무나 벅차고 두렵고 막막했다.

스물아홉,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죽음을 직면해 본적 없는 내가 감히 그들의 감정을 낱알이 헤아리고 공감할 수 있을까. 오만가지 생각에 걱정이 가득했지만 경험해 보자, 하는 다소 모험적인 생각으로 그들을 만나게 되었다.

많이 야위고 힘이 들어 보이는 환자분들의 모습과 그들을 묵묵히 간호하며 환자분들의 표정을 거울처럼 함께 짓고 있는 보호자들을 만나며 죽음에 대한 두려운 생각에 위축되고 겁먹는 나 자신과 직면하였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고 분노하는 그들의 마음이 내 마음처럼 자연히 읽히지 않고 이해되며 함께 분노하기도, 우울하여 침체되기도 했다.

삶의 끝자락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과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내가 감사하다는 생각도 했었다. 그리고 그것이 참 오만한 생각이었음을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들을 마주하며 느꼈다.

좀 더 가까이 환자분들께 다가가 보니 그들은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계셨고 보다 섬세하고 절실하게 하루, 하루를 경험하고 계셨다. 살아있음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끼며 지내는 이들이 몇몇이나 될까. 안일한 마음으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며 하루를 탕진하듯 지내온 내가 부끄러워졌고 죄스러워졌다. 그럼에도 감히 어떻게 그들에 비해 내가 충분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경험한다 할 수 있을까.

반복되는 삶에 무감각하고 무의미해졌다면 나는 이곳에 와보시라고 안내하고 싶다. 그들이 가르쳐 주는 살아감의 의미와 이 순간의 감사함을 느껴 보시기를…….

이곳은 언제나 나에게 살아가는 법을 일깨우는 단비가 내린다. 지금은 혹 나의 삶을 남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에게 그러하듯 다른 사람의 삶 또한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내가 있다.

타인에 의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알게 된 그들과 나는 서로 다른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곳의 환자분들도 나도 지금은 살아감 속에 있다. 하지만 질병, 지진, 전쟁, 일촉즉발의 예상치 못한 사고 등 우리 앞에 당면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자연히 오는 죽음이라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지금도 나는 보이지 않는 답을 찾으며 죽음을 수용하는 여정 중에 있다.

바람이 있다면 죽음 앞에 죽음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날이 흩어질 내 몸에서 내 가치를 찾지 않고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시간들에 욕심내지 않고 나에게 당면한 그 순간을 충분히 느끼며 자유로울 수 있기를…….

끝으로 이곳으로 나를 이끌어준 많은 인연들과 이곳에서 나에게 매 순간의 소중함을 가르쳐주신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들께 감사하는 마음 담아 합장 올립니다.



무술년 정토마을 장좌기도 입재식을 봉행하면서……

자원개발실 팀장 김현아

해마다 정초가 되면 정토마을에서는 국태민안, 업장소멸, 선망부모 인연영가 천도를 봉행하면서 승가공동체 스님들과 대중이 24시간 경전의 꽃 법화경을 읽으며 철야 정진하는 장좌기도를 8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장좌기도는 21일간 이어지며, 그 일정을 안내드리면 기도 입재일인 2월 10일 (토)에는 회주스님께서 대중스님들과 함께 입재식을 이끌어 주셨고, 기도 14일째인 2월 24일(토)에는 국태민안과 호국영령 천도의식을, 기도 15일째인 2월 25일(일)에는 티베트 밀교의식 반야기도를, 기도 16일째인 2월 26일(월)에는 수자령 영가 천도를, 기도 20일째인 3월 1일(목)에는 선망조상과 인연영가의 천도를, 기도 21일째인 3월 2일(금) 정월대보름에는 방생법회 및 회향이 진행됩니다.

여법한 회향을 위해 다양하게 진행되는 여정에 인적, 물적 자원들이 많이 필요하므로 경제적으로 중추가 되는 보시를 해 주시는 설판·부설판의 공덕이 매우 큼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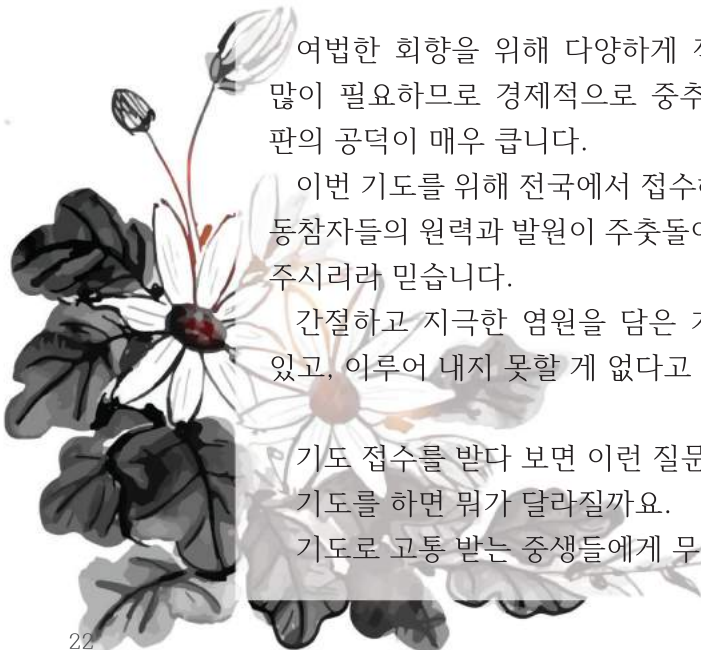
이번 기도를 위해 전국에서 접수해주신 동참자가 300여 명에 이르며 이 동참자들의 원력과 발원이 주춧돌이 되어 정토 도량의 옹호신장들이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간절하고 지극한 염원을 담은 기도는 불행한 삶을 행복하게 바꿀 수 있고, 이루어 내지 못할 게 없다고 합니다.

기도 접수를 받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습니다.

기도를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기도로 고통 받는 중생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저의 경험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남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능력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증장됨을 느낄 수 있으며 번뇌가 있으되 번뇌를 쓰지 않고 지혜로 바꿔 쓸 줄 아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장좌기도에 동참한 법화행자들은 다른 이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질 수 있다면, 흔쾌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변이 잘 되고 행복해야 내가 절로 잘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범부로 살았다 하더라도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육근이 청정케 정화됨을 느낍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피입니다.

두 눈 어두운 이내 몸을 굽어 살피는 것을 본래 마음, 자성이라 하고 그 열쇠 하나면 족한데 장좌기도가 그 자성을 찾아주는 길입니다.

멀리서 그 방법을 찾지 말고, 밖에 있다 착각도 하지 말고 법화경 안에 그 길이 있으므로 감추어져 있는 보석을 기도를 통해 잘 찾아 쓰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장좌기도 입재 후기를 쓰면서 마음이 많이 흐뭇합니다.

기도를 함께 해 보자고 권하면 이런저런 사유가 많고 개개인의 사정이 많은 요즈음 현실이거든요. 법화경이 어떠한 경인지 듣고 보고, 잠깐만 읽어 봐도 그 공덕이 무량하다 하는데 정토마을에서 21 일 동안 끊임없이 읽을 기회를, 법석을 펼쳐 놓았으니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습니까.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환희로운 법석에 동참하셔서, 정토마을 도량에 법화의 법비가 꽃비가 되어 내려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환희로운 이 기도에 동참하신 이차 인연 공덕으로 자신의 본래 면목을 찾는 거룩한 기회가 되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내에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축원 드립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남인도 여행기

서진
정토마을 승가공동체

2018년 1월부터 정토마을에서 승가 원주소임을 살고 있는 서진입니다.

글이란 것을 참 오랜만에 써 봅니다.

매일 떠드는 일은 많이 하고 있는데, 글을 쓴다는 것은 메모나 문자, 모바일 메신저 외에는 안 해본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간만에 재밌을 것 같아서 수락은 했는데, 막상 시작하려니 이제야 막막한 줄을 알겠네요.

그러나, 흐르는 물이 의지나 목적을 가지고 흐르는 것이 아니듯.

저도 그냥 흘러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정토마을에 와서 살고 있는 것도. 남인도 여행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도.

그저 그렇게 흐름에 순응하고 보니 벌어져 있는 일들인 것처럼.

오직 임운任運!

남인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대론을 보던 날 밤이었습니다.

붉은 옷을 입으신 수백 명의 티베트 스님들이 드레퐁 사원의 광장에 운집하여 낮은 소리로 진언과 반야심경을 송경하시는데, 그 소리의 파동으로 인해 앉아 있던 땅에까지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예경을 마치신 후엔 스님들이 1:1로 짝을 지어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면서,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소리를 지릅니다. 토론을 벌이는 거래요.

하루 종일 낮 동안엔 스승님들께 강의를 듣고 책을 보고 밤에는 이렇게 모여 도반들과 공부내용을 맞춰본다고 합니다.

나와 너의 무지無智를
박살내기 위하여.



저기에 많아야 1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저 사미스님은 목에 핏대가 설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러는 거지. 무엇이 저이들을 이렇게까지 하게 만드는 걸까? 이 진지함과 간절함은 무엇에서 나오는 걸까?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아마도 일상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다들 그러고 사니까. 그 곳은.

어린 사미스님들은 본대로 따라하고, 따라한 것이 습이 되고, 당연한 일상이 된 거겠죠. 둘러보면 주위의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깐.

우리에겐 태산같이 커 보이는 이 힘은 그 분들에겐 그저 늘 하는 일상이 비춰진 모습인 것 같아요. 수행이 일상이고. 일상이라 할 것은 수행이 전부인 공간.

불국토란 이런 것일까요.

더하여 또 한 가지 잊히지 않는 남인도의 기억은 그곳 스님들의 <마음 씬> 이었습니다.

원장스님께서 이미 지어 놓으신 선한 행의 결과 덕분으로 일행은 남인도 일정 내내 너무나 친절하고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남인도의 빨뎨 딱바 큰스님께서 한국의 메르스 열풍 시기에 자재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신 일은 존자님과 드레퐁 사원의 모든 스님들이 알고 있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망 사원의 원주스님이 대표로 우리들의 스승님을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실 때는 티베트 말로 하고 계시는데도 그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많은 고망 사원의 대중 스님들께서는 우리가 떠나는 날 새벽에 자재병원의 발전과 병원의 후원자들과 모든 함께 하는 인연들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 거듭하여 기도해주시고 축원해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처음 도착 때부터 지내고 있던 중간과 마지막 비행기를 타는 끝까지 끊임없이 친절하고 정성스럽게 대해 주셨습니다.



드레퐁 사원에서 공항까지는 차를 타고 6시간이 걸리고 다시 사원으로 돌아가려면 왕복 12시간입니다. 발똥 딱바 큰스님. 당신들의 스승님께서 우리 일행이 무사히 비행기를 타는 것을 확인하고 오라고 하셨다고. 오직 그러한 이유로 사원의 원주이신 잠바스님과 우리 자재병원에 계신 발덴스님의 동생이신 푼촉스님께서서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잘 가라고 인사하고 손 흔들어 주고 가시려고 12시간을 차를 타고 오고 가시는 일.

그런 것,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사람을 그렇게까지 대해 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소임이어서. 내가 맡은 책임감으로가 아니라 진심이라서. 그저 행해지는 그 평범한 낱낱의 마음 씀들이 말로 할 수 없는 것들로 화하여져 제 안에 채워졌습니다.

기분 좋은 행복한 꿈을 꾸다가 문득 꿈인 줄 알아차렸을 때 깨어서도 이 느낌이 계속되어지길 바라는 어리석은 바람처럼. 지금 여기 남인도 드레퐁 사원에서 내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이 한국에 가서도 나의 일상 속으로 돌아오더라도 유지되어지기를.

보리심이 행으로 발현되는 것. 그 멋진 수행의 과정과 결과를 지켜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곳이었어요. 거기.
정말 꿈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의료봉사를 마치고...

“집에서도 설거지 자주하세요?”

인도 의료봉사지에서 만난 정토마을 관계자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네요. 저의 대답은 아뇨! 집에서는 안 해요, 였습니다.

저는 지난해 인도의료봉사를 가자고 할 때 의료봉사 가면 나는 무엇을 할까? 하고 의문을 가진 채 그냥 따라가서 적당한 휴식과 힐링을 하고 오자 하는 마음으로 의료봉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출발부터가 고통이었습니다. 9시간의 비행시간으로 도착한 인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성도지 보드가야에 도착하니 그곳마저도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잠자리도 화장실도 없는 숙소에서 초가을 저녁 날씨 한기를 느끼며 잠을 청했지만 모기의 습격에 고통의 밤을 보냈습니다.

정말 힘든 하룻밤을 보내고 나니 출발 전 생각했던 휴식과 힐링... 은 온데간데없이 투정과 불만으로 머릿속이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밝아오고 새벽 일찍 보드가야 대담으로 가는 중 목격한 인도의 모습은 놀람과 안타까움 그 자체였습니다.

길가에 앉아 돼지, 닭 등 짐승들과 같이 생활하며 위생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이 살고 있는 저 분들을 위해 우리가 왔구나,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보드가야 대담 부처님 친견을 하고 스님의 법문을 듣던 중 “오늘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무주상보시다”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다가왔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의료봉사에 도움이 되고자 신심이 났습니다.

그렇게 6박8일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공양 때마다 팔십 여명의 공양 그릇을 설거지 하는 모습을 보시고 정토마을 관계자님이 궁금하셨나 봐요.

이런 저의 모습을 저는 당당히 가족에게 이야기하며 가족 모두에게 응원을 받습니다. 아빠의 봉사활동이 열정으로 살아온 아빠 인생 중 한 페이지를 멋지게 그려나가기... 응원해주는 최순희 여사, 이은지, 이수지 고맙다!

이렇게 응원에 힘을 입어 저는 무슨 일이든 봉사한다면 달려갑니다. 가족의 화합과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의료봉사하며 아침저녁 보드가야 대담 부처님을 친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본 불자는 흔치 않을 거라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정토마을의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청주불자봉사단 단장 도암 이진희 합장

정토마을 염불禪 수행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 ● ● 청주 정토마을 능행스님과 함께하는 염불禪수행 안내 ● ● ●

일 시 : 매월 셋째주 토요일 AM 9시 ~ 일요일 PM 1시 (1박 2일)

준비물 : 천주염주, 개인 물병, 무릎담요, 염불선복 또는 편안한 복장

동참비 : 5만원

장 소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초정로 856-19

접수문의 : 043-298-2258, 010-7305-4935 무량지

전날 입교 가능, 미리 접수 부탁드립니다.

일 정 : 3월 염불선수행 : 16일(금) PM 7시 30분 켄보스님 특별법문

불철회 7일기도 : 17일(토) AM 9시 입재 ~ 23일(금)PM 1시 회향

4월 염불선수행(특별법회) - 20일(금) : 관세음보살님 관정법회 _ 희망자에 한함

아미타부처님 관정법회 및 수행 가르침 구전, 린보체스님께 만다라 공양

: 21일(토)AM 10시 ~ 22일(일) PM 1시

5월 염불선수행 : 18일(금)PM 7시 30분 켄보스님 특별법문

19일(토) AM 9시 ~ 20일(일) PM 1시 : 린보체스님의 아미타부처님 수행방법 전수

6월 염불선수행 : 15일(금)PM 7시 30분 켄보스님 특별법문

16일 AM9시(토) ~ 17일 PM1시(일) 1박2일

● ● ● 청주정토마을 금요일법회 안내 ● ● ●

일 시 : 매월 넷째주 금요일 오전 10시 누구나 참석 (전날 입교가능)

주 제 : 지덕스님의 사가행 법문 (*사가행 : sngon-gro, 금강승 수행의 시작)

장 소 : 청주정토마을 법당

- ◎ **찾아오시는 길** 청주가경터미널 또는 KTX, SRT기차
오송역을 이용하시면 정토마을 차량을 운행합니다.
- ◎ **정토마을 차량 운행시간** 청주가경터미널 오후 3시, 오후 5시20분
오송역 오후 6시
- ◎ **연락처** 043-298-2258



공덕의 향

나의 헌신과 사랑이 다양한 사람들의 삶 위에
희망과 기쁨이 되게 하소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저 또한 그때까지 고해의 바다에 머물러
그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게 하소서.

못 사람들의 선한 마음과 이익을 위하여
보리심을 일으키고
육바라미를 통하여
보리행을 실천하게 하소서.

- 능행스님의 글 중에서

혜솔스님, 배봉희 님,
이병윤 님, 김정숙 님,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귀한 마음 내어 주셨습니다.
봄날 꽃망울보다 아름다운 자비심 고맙습니다.

정토마을과 함께 걷는 이들의 소중한 나눔 실천에 감사합니다.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들

정토가족

2017년 10월

서보호	이진용	박성태	김영자	심미경	김영숙
김정애	소광순	박옥선	박유희	김영숙	김희자
임지민	석리복	안미옥	주태돈	신미선	

2017년 11월

박희순	최규생	윤경미	최태주	안숙원	안정순
전광수	조인자	서현진	송숙희	김희정	이수자
허정원	이동하	이은솔	박성립	박성우	김말순
이종현	박권엽	문혜원	김정효	박종순	조일선
전현석	전시현	이남순	정오삼	허연진	홍기춘
안말숙					

2017년 12월

임정훈	문영봉	심흥술	최재열	강순복	엄성진
임정해	이선애	최재권	박정자	이윤희	송영순
김승자	서미경	김경숙	김향숙	김민정	

2018년 1월

신종길	이동옥	최미교	박재원	제영희	최해금
김혜자	송일순	김민준	오진계	김돌애	변선자
박복래	홍영주	김민채	박미경	정희태	이정숙
한경아	장차옥	김채현	정순자	김소화	최은영
심성애	이승우	김현옥	양재양	강민경	박정미
이상백	이점자	최영자	김용근	최윤자	유명자
최종섭	박현정	최성훈	박창표	오정숙	최혜선
유재현	최재연	박혜숙	박영춘	송귀자	김석기
박민선	유정사	현애옥	장종구	이혜자	변영순
양혜순	황정옥	박은영	김월승	이숙중	정민기
김소정	김민옥	김선희	김진옥	김수복	정현준
서춘옥	오근석	곽구영	서옥란	권희진	유근혜
김윤권	박경우	박채희	기순자	권덕집	정성훈
장혜영	배선혜	서영수	박미희	권하승	장기숙
최용순	박무익	변신숙	김형산	양성례	홍숙희
최은희	진수현	김수중	기경자	노정은	임향열
유현진	김두환	안순애	최병수	이점자	송영미
안금실	정금옥	초려연	박득순	류춘자	이남실
최보춘	신명숙	정혜선	김정숙	허정민	김상철
이균희	최정아	정현숙	이정희	도맹희	이정자
증관스님					

건립후원

2017년 11월

황옥숙 진주칠불회

2017년 12월

황인수

2018년 1월

유주연	유수연	이복숙	최보승	김말순	엄주미
남국종합건설			최종길	대전관음회	

108병상

2017년 10월

나연주 최문정 윤정호

2017년 11월

장현귀	박현주	박금례	김은하	전선숙	박성애
최금호	이순이	신남희	황민자	고원석	이복현
최금영	박성희	노매자	김광수	이점자	백경윤
강지상	유명석	채양희	천필순	정태숙	이종구
장상만	성진스님	김형자	원혜스님	박임성	박성우
소봉순	이영자	이정임	원성스님	강종호	송지환
권은영					

2017년 12월

장경희	김경우	장현순	황진숙	이준석	안재은
최상실	이루리	채송아	한은순	안계선	안채영
강정식	박창현	채송은	이인준	이동현	이남순

2018년 1월

이정숙	정은영	최재진	최동수	이선민	천승용
박지은	박선양	천득희	지인스님	조민경	권경순
신수량	변양호	신태근	강다교	이병우	안영희
박세욱	이준모	보장보살낙찰계			

일시후원

2017년 10월

이광호 원거보죽 황행연 강숙영 박진 서병운(영가)

2017년 11월

임선주	박노미	양영자	최미숙	조현규	박자비성
전광수	강원모	차봉기	김채순	위봉사신도회	

2017년 12월

심우회	양법현	이형준	최보승	김말순	엄주미
손영윤	이정호	임남환	최종길	대전관음회	

2018년 1월

강신규	김창현	김미경	강희정	김경숙	우희중
윤석순	김우현	익명			

의료기자재

2017년 10월

홍미의

2017년 10월 ~ 2018년 1월까지의
신규 동참자 목록입니다.

정토마을과 함께 걷는 이들의 소중한 나눔 실천에 감사합니다.

불사에 동참해 주신 분들

땅 1평

2017년 10월
이정달 장준영 박봉수 서목스님

2017년 11월
정혜원 이철호

2018년 1월
권혁일 이선우 이병우 안배근 김순태

희망시멘트

2017년 10월
곽미경

법당불사

2017년 10월
제창모 김정남 법성스님 심상숙 범해스님 서용스님

2017년 11월
평태옥 박민경 이동식 서경스님 이은연 수정스님(영가)

2017년 12월
김진옥 강문례

2018년 1월
김상남 이병운 이준명 곽성호 곽병준 박시윤
박시아 신지원 신광현 박정미 곽은정

정토마을과 함께 걷는 이들의 소중한 나눔 실천에 감사합니다.

물품을 후원해 주신 분들

생사의장

갈응란	박연주	윤원주	정순옥	강원규
박수자	김병갑	김경오	김석종	설덕주
최승녀	김창옥	최정순	구원조	정정화
장광대	정미자	이명섭	김선숙	전환스님
김성삼	윤정숙	원겸스님		

닐미니후원

허우성	송기동	엄혜정	주총일	차수영	허미성
홍희경	이행숙	임남한	방세도	김경우	강준우
윤도영	송외순	김유현	김종혁	곽미경	김선희
익명	온말연	하부차	이소령	이금남	박소영
정혜심	전옥녀	김증자	김현아	정찬중	남궁은숙
정원경					

2017년 10월

인현광	강상호	서미자	서진스님	정청례
양홍수	도우스님	현불회	김종호	조인숙
김중균	김규호	임선주	심말순	최세진
공정수	이말순	김수영	심말순	박영희
최영원	노기동	한환희주	유화자	김재현
이갑임	황유철	서민지	임재범	울산선우회
부산불교보현회				

2017년 11월

사리암	무명	정청례	박영희	유숙희	김주성
위봉사	정순옥	조인숙	남철주	혜원스님	김거송
정정화	이지혜	운문사	이의열	진말숙	양택길
노태식	양택길	이지서	강구남	김혜정	고윤옥
이의열	김정옥	오지연	홍경자	최정석	김명숙
서효진	혜술스님	최세진	김병조	대구공덕회	무명
노태식	현불회	임선주	정승민	김혜정	도우스님
천성규	심순애	남궁은숙	무명	정산약품	이만우
김창복	임선주	능행스님	김도림	남정애	이지서

2017년 12월

황순남	노기동	진광스님	김성환	김진철
정희경	도법스님	반야행	김재손	최상택
사리암	김선애	남정애	무명씨	정봉연
혜원스님	이지서	강윤지	한경옥	박광춘
문지영	지안스님	운문사	박덕승	천득희
문영초	조인숙	백흥사	최인실	박현준
황유철	정청례	안선기	이창호	박이영
우경희	이만우	안미주	이상국	전아송
오형자	류태돌	이남이	권중태	권재춘
최영민	김병갑	서인숙	최완식	이명자
이지서	정진성	이영애	이옥환	선길모
세심사	하현재	이난방	김중수	울산선우회
강동화	정우에너지			

2018년 1월

명지스님	이병운	김정숙	최정통	송지환	채보미
박복래	김민수	신병량	최준하	송기동	박주영
서춘복	이영수	혜광스님	강문자	한환희주	정정란
안영선	김성례	김영도	최현우	조옥성	곽미경
노기동	황의선	정현영	윤춘자	오연이	김성일
여호준	최병도	이지혜	박기화	조옥성	김송애

청주정토마을

여래향	정창구	임재범	박대중	불칠회	김옥순
보인	신옥호	강점자	김재순	조주희	이영수
김재순	신병량	전명숙	강상렬	여환식	임옥이
홍등행	이해일	법연화	허성모	이영애	
미원우체국(신흥우)					

감사의 글

봄바람에 가지 끝마다 꽃물 퍼지는 정토마을에서 능행 보내드립니다.

정토마을 현장에서
일체 중생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펼쳐나가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주시는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덕분에 이 곳 정토마을의 만발공양식당은
보호자, 봉사자, 후원자, 직원들
누구에게나 따뜻한 공양을 조건 없이 드릴 수 있어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대께옵서도 정토마을에 방문하시면 꼭 공양 드시고 가세요.
정토마을 승가공동체 스님들께서 준비하는
멋진 식단들이 당신을 기다린답니다.

삼월 꽃 피고 새들도 자유롭게 날거든
그대께옵서도 한번 다녀가시길…….

언제나 길상하시고 번영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정토마을에서 능행 합장

108병상 기부 동참하기

정토마을에서는 20년 간 실천해 온 호스피스완화의료보다 더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전문화 및 개별화된 시스템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108병상 모연을 봉행합니다.
1구좌 108만 원이며, 36개월(월 3만 원) 분납 동참 가능합니다.

동참계좌 : 농협 815039-55-003185 (예금주 : (재)정토사관자재회) **접수문의** : 052-255-8588
방문접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땅 한 평 공양 불사

정토마을의 환우와 보호자들이 부처님께 기대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정토마을 법당 건립을 위한 땅 한평 공양 불사를 발원합니다.
본 불사는 일시불 또는 3회 분납으로 공양 올리실 수 있습니다.

1평 공양금 : 300,000 원 **동참계좌** : 농협 351-0487-2570-73 (예금주 : 정토마을)
불사문의 :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052-255-8588

정토마을 제4차 법화경 천일기도

후원자 분들의 안녕과 평안한 삶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제4차 법화경 천일기도가 2018년 무술년에도 연양 정토마을 대법당에서 이어집니다.
병고액난과 악업소멸을 위한 티벳 밀교의식과 법화경독송이 함께하는 제4차 법화경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기도입재일 : 2017년 2월 26일(음력 2월 초하루) **기도 주제** : 법화경 독송
기도동참비 : 매월 3만원 36개월 분납(자동이체) **접수문의** :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052-255-8588

진신사리 봉안 (8차) 백일기도 봉행

석가여래 진신사리를 정토마을에 모시고 백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부처님의 화현으로 중생의 고통과 업장을 소멸시키고 선근공덕을 증장시키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을 청하는 천수다라니 500독 기도 정진에 초대하오니 수희 동참하시어 매 순간, 불은 가득한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입재일 : 2018년 2월 11일(양) 오전 10시 **기도회향일** : 2018년 5월 22일(양) 오전 10시
기도동참비 : 300,000 원 (분납 가능) **접수문의** :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052-255-8588

마하치유 방송이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주최: 마하치유방송실
담당: 치유코디네이터 이지혜

본 병원에서는 재능 나눔 봉사자들을 모시고 재원환자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및 공연 관람을 통해 삶에 대한 애착과 존재감을 독려하며, 가족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족의 소중함과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나누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병원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생일잔치 및 놀이한마당

본 병원에서는 재원환자 대상으로 생일잔치를 해 드리므로 잃어버린 삶에 대한 애착과 존재감을 독려하며, 가족들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부모님의 소중함과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나누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생일잔치의 축하와 하루의 감동을 선물하고자 각 장르의 예술봉사 단체가 함께합니다.

단체명 | 하하호호웃음치유예술단, 김혜향 국악연구소, 하모니여행, 서혜인 춤동작치유, 원예치유, 사노라면 예술단, 플룻 연주, 테3 트리오



다도와 요가의 만남

따뜻한 차를 내리는 모습을 직접 선보이며 정성스레 내린 차를 건넨다. 따뜻한 차와 정성으로 몸과 마음이 이완되면 요가로 몸을 스트레칭시킨다.

단체명 | 다화회 협회 이현숙 선생님 외



동작치유

안전한 도구인 자신의 몸짓을 통해 자신의 욕구들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수용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심신의 치유를 얻고자 합니다.

단체명 | 서혜인 타말파 춤동작 치료사

본 병원 환우들과 감동의 시간을 함께 해 주실 재능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더없는 감동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솔마더(Soul mother) 18명 수료

지난 11월 5일, 솔마더(Soul mother)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4월 2일을 시작으로 매월 1회씩, 총 10회에 걸쳐 영적 치유 에너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련으로 이루어졌으며, 18명의 스님과 재가자가 수료하였습니다.



46기 생사의 장 불교호스피스교육 준비 워크숍

지난 12월 10일, 46기 생사의 장 불교호스피스 교육 워크숍이 실시되었습니다. 교육스텝과 봉사자와 행정팀이 함께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46기 생사의 장 일정과 교육기간 내 주의사항, 봉사자 VMS 가입 안내, 후원비 및 물품 접수 방법에 대해 안내되었습니다.



MAHABODHI
EDUCATION
CENTER

46기 생사의 장 불교호스피스교육 18명 수료

지난 1월 7일, 마하보디교육원에서 6박 7일 일정으로 진행되었던 제46기 생사의 장 불교호스피스 교육은 스님과 재가자 18명이 1월 13일 모든 교육을 마치고 수료하였습니다.

생사의 장 불교호스피스교육은 불교적 관점에서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통해 자기를 직면하고 성찰하여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동체 직원교육

지난 1월 25일, 2018년 첫 공동체 직원교육이 있었습니다. 재단이사장이신 능행스님께서 전해 주시는 청주 미원면의 정토마을 호스피스센터 설립부터 현재의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법인사무국, 마하보디교육원이 설립되는 동안의 생생한 경험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영남알프스(상북)지역 생명공동체를 위한 주민토론회 개최

1월 26일 정토마을이 위치한 울주지역 주민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영남알프스(상북) 지역 생명공동체를 위한 주민토론회’가 NGO생명교육 네트워크 공존의 주관주최로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는 무분별한 상북 일반 산업단지 조성으로 영남알프스 본 고장인 상북 일대가 황폐화되는 문제를 직시하고 주민 스스로가 지역을 살리기 위한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능행스님(기조 발제자)은 주민의 생명 존엄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공단개발을 확대 조성하는 지자체를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제3회 교사 소진예방 연수교육 <교사들의 자기치유 명상법과 힐링>

1월 23일 ~ 24일, 제3회 특수분야 교원직무연수 <교사들의 자기치유 명상법과 힐링>이 12명의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본 연수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기부 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의 사회공헌 사업으로서 교원의 심신 에너지 소진예방과 자기치유 및 회복능력을 개발하여 학교현장에서 심리적 안정과 긍정적 학생 생활지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수프로그램입니다.



MAHABODHI
MEDITATION
PSYCHOLOGY
GRADUATE
SCHOOL

겨울방학 공개워크숍 SATI수행 <행복, 참을 수 없는 가벼움>

2018년 2월 24일 ~ 25일 1박 2일의 과정(총 16시간)으로 겨울방학 공개워크숍 <SATI수행-행복,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열립니다.

이번 워크숍은 마음근육을 키우고 마음 에너지를 충전하여 삶을 보다 의미 있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Bhikkhu Buddhapala 스님의 지도로 함께합니다.



제2회 시민공개특강 <치유와 성장의 힐링극장>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과 NGO 생명교육 네트워크 공존이 2018년 봄, 제2회 시민공개특강 <치유와 성장의 힐링극장>을 실시합니다.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등장인물의 삶을 조망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난 문제를 지지와 격려를 통해 해결하고 치유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체심리상담연구소 장인규 소장님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2번째 목요일 저녁에 50명(선착순 접수)의 시민과 함께합니다.

2018 봄 시민공개특강

치유와 성장의
힐링극장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등장인물의 삶을 조망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난 문제를 지지와 격려를 통해 해결하고 치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힐링극장의 메시지는 살아가는데 다담뽀이되어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1 마하보디사트바수행 <생사의 장>

불교적 관점에서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자기를 직면하고 성찰하여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 간 2018년 8월 5일(일)~8월 11일(토)

접수마감 2018년 7월 20일 (금) (선착순 40명)

※ 본 프로그램은 진행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솔마더(Soul mother) 수련생 모집

기 간

매월 1째주 일요일(총 10회)
1회차 2018년 4월 1일(일요일)
13:00~22:00 / 9시간

대 상

사부대중

교 육 비

140만원(수련복, 교재비 별도)

접수마감

2018년 3월 20일 (화) (선착순 43명)

Since 1993

승려연수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 (대불교연인 2018-009호)

기 간

2018년 3월 27일(화)~3월 29일(목)
(2박 3일)

대 상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승려접수 30점 인증)

교 육 비

25만원
(*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5만원 감면)

접수마감

2018년 3월 19일 (월) (선착순 40명)

주 관 마하보디교육원

제출서류 교육지원서, 사진(3x4) 1매

접수방법 우편, 전화, 홈페이지, 방문, 이메일

접수문의 T. 052)255-8522, 8524 F. 052)264-0209 M. 010-8848-8522

E. mahabodhi@daum.net H. www.mahaedu.org

A. 44908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마하보디교육원

정토마을 모연문



정토마을은
 붓다의 가르침을 토대로
 공존을 통해, 함께하는 공생의 삶에 질적 향상을 꿈꾸며
 좀 더 아름다운 생과 사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 모연을 통하여 더욱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동참하겠습니다.

■ 정토마을의 후원과 불사에 동참하시면 연말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구 분	후원(동참)금	계좌번호	비 고
108병상 후원 (호스피스센터 건립)	1,080,000 원 (분납 가능)	농협 815039-55-003185 예금주 : (재)정토사관자재회	(분납) 3만원 : 36개월
진신사리 봉안 및 삼천불 조성	1,080,000 원 (분납 가능)	농협 351-0487-2570-73 예금주 : 정토마을 국민 701401-01-202462 (재)정토사관자재회	5만 4천원 : 20개월 10만 8천원 : 10개월
부처님오신날 한 생명 살림등	한생명살림등-5만원 법당1년등-10만원 극락왕생등-10만원 사업성취등-30만원	농협 351-0689-8746-30 (울산) 예금주 : 정토마을 농협 401120-51-017461 (청주) 예금주 : 정토마을	
한 생명 후원	매월 1만원부터	부산 101-2002-6325-04 (재)정토사관자재회 농협 401131-51-080245 (재)정토사관자재회	
땅 한 평 공양 불사	300,000 원	농협 351-0487-2570-73 예금주 : 정토마을 국민 701401-01-202462 (재)정토사관자재회	
법화경 천일기도	매월 3만원	농협 401131-51-081662 예금주 : (재)정토사관자재회	

정토마을 법인사무국 전화 : 052)255-8588 팩스 : 052)254-2347

부처님 오신 날 한 생명 살림등 모연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은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가장 먼저 실천하는 도량입니다.

자재요양병원 법당 건립을 위한 한 생명 살림등 불 밝히시는 공덕으로 후원자님과 후원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기를 발원합니다.



연등공양금

한생명 살림등	5만원
법당 1년등	10만원
극락왕생등 (영가등)	10만원
사업 성취등	30만원
대광명성취등	100만원

울산 정토마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Tel.052-255-8588

입금계좌: 농협 351-0689-8746-03
(예금주: 정토마을)

청주 정토마을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미원초정로

856-19 Tel.043-298-2258

입금계좌: 농협 401120-51-017461
(예금주: 정토마을)

무술년 올해의 정토마을 핵심 불사는 법당을 원만히 회향하는 일입니다.



4년의 모연 끝에 드디어 올해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미타불을 주불로 모시고 삼천불의 원불(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약사여래부처님)을 조성하는 대작 불사입니다. 불자님 한분 한분의 뜻 깊은 서원을 모십니다. 아직은 인연을 기다리는 원불들이 남아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때가 있다고 하듯, 그 때를 피해가지 않고 인연을 맺는 일 또한 무량한 공덕을 짓는 일입니다. 절이 하나 창건됨은 고통 받는 중생들에게 감로수와 같은 부처님의 정법을 공급할 수 있는 복전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정토마을에 법당이 건립되지 않아 교육원 강당을 법당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교육과 법회, 기도, 천도재를 한 곳에서 하다 보니 일정이 중복될 때는 교육원 2층, 3층 혹은 컨테이너 소법당으로 옮겨 가며 행사를 치러야 하는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법당 불사는 그 동안의 불편함을 해소함은 물론 열린 법당으로서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4년 동안 법당 건립을 위해 모자라는 부지를 매입하는 데 수많은 불자님들께서 땅 1평 공양 불사에 동참하시어 땅을 사 주셨고, 1,600여 명의 동참자가 원불을 모시고 일반 동참에도 참여해 주시어서, 이러한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법당의 원만한 건립 성취는 이미 예견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한두 분의 독시주로 법당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의 정성과 보시 공덕이 모아져 불사를 이룰 때 그 의미가 더욱 크다는 생각에, 본 모연은 계속됩니다.

약한 힘으로는 성취가 더디고 어렵습니다. 전국에 계신 정토마을 후원자님, 물심양면의 위법 정신을 한 번 더 결집시켜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올 한 해 동안 법당 건립 불사에 온 에너지를 모아 보려 합니다. 불꽃같은 신심으로 시멘트 한 포라도 부처님의 세계를 장엄하는 데 밑알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하오며,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무루의 복전을 일구신 공덕을 찬탄 드리고 모든 생에 불국토에 태어나시기를 발원합니다. 더불어 이 글을 읽어 주시는 불자님의 가정에도 부처님의 무한한 가호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2018년 1월 삼천불전 불사 모연 상황

주불 아미타불 동참자 : 33건, 500만 원 이상 **삼존불** : 3건, 가족 2000만 원

관세음보살 : 313건, 108만 원 **지장보살** : 124건, 108만 원 **약사여래불** : 105건, 108만 원

땅 1평 공양 불사 : 818건, 1평 30만 원 **일반동참** : 168건, 10만 원 이상

법당 내에 원불배치 도면이 확정되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가족끼리 나란히 모시기를 원하시면 미리 신청해 주시어 자리를 배정받으셔야 합니다.

입금계좌 : 농협 351-0487-2570-73 정토마을 문의 : 052-255-8588, 8586 (화주 : 평등각)



능행스님과 SNS 친구해요!



정토마을에 계신 능행스님을
후원자님의 집에서 SNS로 만나볼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능행스님과 소통도 하고,
능행스님의 좋은 글귀도 매일 받아보실 수 있는 SNS 친구맺기!
오늘부터 같이 해 보실래요?



능행스님과
SNS
친구하는
방법



카카오톡 - 최상단 검색창 터치
- '정토마을 능행스님' 입력&검색
- 플러스친구 추가



인스타그램 - 화면 하단 검색
- '능행스님' 입력&검색
- 팔로잉



카카오톡 - 화면 상단 검색
- '능행스님' 입력&검색
- 친구 추가



다음 카페 검색
'정토마을' - 가입

딱돌[bTags gro]

**이 진언 만다라를 몸에 걸침으로써
오온이 자연해탈 됩니다.**

악업이 치성하고 업이 무거운 사람도 선하고 착하여 업이 맑고 가벼운 사람도 모두가 죽어갈 때 이 다라니를 어깨에 걸치게 되면 의식(영혼)은 밝은 빛으로 해탈하여 극락세계 연꽃 속에 태어난다. 이승에서 마지막 숨이 남아 있을 때 딱돌을 어깨에 걸치기만 하더라도 오온(육체)으로부터 집착과 고통을 가볍게 여의고 해탈을 한다.

이것을 만나기는 진실로 어렵고,

만나도 마음에 받아들여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므로 이것을 만나는 자는 누구든 환희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공손히 받아 지니도록 하라.

임종 시에도 이것을 몸에서 분리시키지 말라. [다비 시에도 이것을 몸에서 분리시키지 말라.]

이것을 보고, 듣고,忆념하고, 접촉함을 통해서 해탈하게 되는 딱돌을 몸에 걸치므로

악업과 죄장이 남김없이 정확되고, 살덩이의 육신이 무지개의 몸으로 바뀌게 하소서!

(‘사자의 서’ 중에서)내가 이 육신을 벗어던질 때 탐욕과 분노, 애착의 넝쿨을 모두 끊고,

마음을 조작 없는 본래상태에 안치하여 죽음을 해탈의 길로 삼도록 가지하소서!

불보살님의 지극한 가피의 힘과 범성의 본질이 본래로 청정함과,

또한 나의 정결한 의지의 힘으로 발원한 그대로 성취되게 하소서!

1200년 전 티베트 성자 빠드마삼바바께서 구술한 비방을 여제자 에시초겔이 글자로 기록하여 숨겨둔 경전이 ‘사자의 서’다. 빠드마삼바바께서는 바르도퇴돌(사자의 서)을 구술하면서 말세의 불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셨다. 만약 누구든지 이 가르침을 듣고서 단지 샅된 소견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는 반드시 해탈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극히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라. 이것은 일체의 정수만을 가려 모은 제호와 같다. 그러므로 이 바르도퇴돌(사자의 서)의 가르침을 단지 듣는 것만으로 해탈하고, 죽어갈 때 어깨에 걸치는 것만으로 해탈한다.

온전한 부처님의 가피물인 딱돌

인연자들이 임종할 때 어깨에 걸쳐 주시면 망자가 해탈을 하는데 수승한 인연복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접수/입원/퇴원

Healing is Loving

완화의료중심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Healing is loving, 사랑이 곧 치유입니다.



| 전문 의료 서비스

내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 양·한방 협진 진료

양방특수요법 - 항암면역증강요법,
미술도주사, 메가비타요법,
마이애스 카테일 주사 등

한방요법 - 한방 침·뜸·부항요법, 전침,
탕약치료, 약재요법 등

| 특화 치유 서비스

예술융합치유

음악, 미술, 요가, 춤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심신 치유와 자기 성장을 만들어가는 자기융합의
행복한 과정 경험

임상전문 상담치유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중재 조절과 적극적인 영적
돌봄을 통한 치유.
임종기도와 의식을 통한 편안한 여정으로의 동행

| 층별안내

1F 완화의료(호스피스)병동
양·한방 진료실, 집중관리실, F·G실,
입원상담실, 원무과, 공용 목욕실

2F 재활·요양병동
마하치유방송실, 휴게실, 탕비실,
영적돌봄연구실, 공용 목욕실

3F 승가병동
한방요법실, 물리치료실, 사회복지실, 영양실,
힐링푸드식당, 차담실, 공용 목욕실

B1 임상병리실, 약국, 바이룸, 봉사자실, 교육장,
직원휴게실, 한방약제실, 탕전실

| 진료안내

외래진료 : 09:00~18:00 (월--금)
입원상담 : 052-255-8400
(주말, 공휴일 휴무)

| 입원 대상자

완화의료(호스피스)대상자 및 암환자, 중풍, 치매,
노인성·만성 질환자,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



수행과 돌봄이 하나된
행복공동체 정토마을

후원자 함께 가꾸기

‘1인 1만원 삼만 정기후원자 운동’

선한 일을 다 같이 만들어 가는 릴레이에 함께해요.
한 사람의 후원은 한 환자와 고통을 더불어 나누는 것입니다.



재단법인사무국
Foundation Executive Office

기부금, 이렇게 쓰입니다.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희망을 선물하기 위한 희망기금으로 사용되며
불치병 환자를 비롯한 암환자들의 재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금 및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익사업 기금으로 쓰입니다.

나눔동참

농협	401131-51-080245
국민은행	713701-01-001909
예금주	(재)정토사관자재회
해외송금	Kookmin bank seoul korea 계좌 713701-01-001909 (Jungtosagwan-jjaehoe)

접수방법

전화	052-255-8588
팩스	052-254-2347
홈페이지	www.jungtoh.org
방문접수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재)정토사관자재회